

# “한전工大 설립, 국정 100대 과제”

##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

2022년 개교 목표로 용역 검토 “특별법·정부 지원도 요청할 것”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이 한전공대 설립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전공대는 최근 설립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은 “한전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영업이익 적자에 따른 공대 설립 시기 지연과 규모 축소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애초 계획인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대 설립 전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간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공대 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일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이 지난 7일 나주시를 방문해 강인규 시장과 만나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

련의 질차이고, 공대 설립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을 검토한 수준”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대 해석 자체를 요청했다.

이 단장은 “개교 시기에 맞춘 원활한 공대 설립을 위한 비용, 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는 설립 지연이나 규모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한전과의 논의 채널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전공대 입지는 연구대학 중심의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해야지, 지자체 간 무리한 입지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기아차 광주공장 ‘과학교실’ 개최

## 여름방학, 지역아동센터 체험 기회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정찬민)은 7일~8일, 2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보다 알찬! 상상력 가득한 과학교실’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학교실은 지역사회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아차 광주공장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챌린지콘서트’의 여름방학 맞이 체험프로그램이다.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광주시 광산구 오룡동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과학 관련 체험으로 진행된다. 지난 7~8일 열린 과학교실에서 학생들은 총 3개 팀으로 나뉘어 국립광주과학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과학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 투어하며 국립광주과학관의 신기한 과학 전시물을 관람했으며, 과학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중인 여름방학 특별전 ‘미지의 해양탐험? Under the Sea’를 통해 미래 자원과 생활의 터전이 될 해양에 대한 이해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9종 30여점의 고래, 해양생물 골격염색 표본, 대형문어 실물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보고, 쥐라기 시대 바다 공룡 체험, 심해 속 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지의 해양을 탐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더불어 국립광주과학관 조숙경 박사와, 김현승 박사가 진행하는 ‘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특강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과학 관련 궁금증도 해소하며 신나고 유쾌한 하루를 보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주고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는 과학캠프로 초대했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기아챌린지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사회 성장세대 육성을 위한 ‘기아 챌린지 콘서트’ 5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18 기아챌린지콘서트’ 발대식을 갖고 갖고 ‘문화예술교육’에 7000만원, ‘드림토크콘서트’에 8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

### 가평군, 9월 1·2일 ‘수제맥주 축제’ 개최

## 쉬엄마을서 수제맥주 즐기자!

전국 최초 수제맥주마을서 열려 만들기·홉길 버스 등 체험 다양

경기도 가평군은 전국 최초의 수제맥주마을인 청평4리 ‘쉬엄마을’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제4회 수제맥주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축제가 개최되는 수제맥주마을을 광장(구·청평역사 공동체 정원)은 군이 7억여 원을 들여 2만6천722㎡의 부지에 텃밭 32개소 735㎡, 관리동 208㎡, 지원동 122㎡, 섬마을 기차원 1개소, 연식파고라 등을 설치한 곳이다.

‘가평 수제맥주 축제’는 수제맥주 브루어리 카브루가 2015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그동안 3회까지 자라섬에서 개최해왔다.

올해는 쉬엄마을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Meet the Local’이라는 주제로 청평4리, GTR(Good Times Rok)와 공동 주최·주관한다.

지역축제인 만큼 마을주민이 직접 진행하는 Beer Class를 비롯해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 행사 ▲지역민이 직접 만들고 키우는 홉길(Hop road) ▲가평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참가업체로는 가평 카브루 외에 제주맥주와 올산의 화수브루어리, 서울브루어리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브루어리가 참여하고 수입 수제맥주로는 코나브루잉, 에텔바이스, 투올 등의 유명 맥주도 선보인다.

또 진주햄, 스타케밥 등이 참가해 맥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국내 유명 인디밴드와 디제잉 등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오는 9월 1일 12시부터 밤 10시까지, 2일은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행사장에서 맛보고 싶은 맥주와 음식을 구매해 즐기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경기 가평=고성철 기자 ksc@



기아차 광주공장이 광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수업보다 알찬! 상상력 가득한 과학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 폭염에 뜨거워지는 바다

## 전남도, 양식장 피해 예방 팔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일부 연안 해역의 수온이 28℃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의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확대 발령함에 따라 양식장 등에서는 보다 철저한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수온 경보 발령 해역은 보성~고흥~장흥의 득량만해역 내측과, 해남 화산~영광 안마도의 서해남부 내만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득량만해역의 장흥 회진은 29.5도, 서해남부의 신안 압해는 29.9도, 영광 안마도는 29.8도 등으로 매우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바다 수온이 28도 이상 장기간 지속되

면 전복, 넙치, 우럭 등 온대성 양식 생물은 생리 활력이 저하돼 대량 폐사가 우려돼 양식 어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류 양식장에서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해상 가두리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가두리 침하 또는 저층수 순환 등을 해줘야 한다.

전라남도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차광막 설치와 액화산소 공급을 지원해왔다. 해양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 현장 대응반을 편성해 양식장별 피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김남중 기자

## 세기의 명작 ‘맨 오브 라만차’ 인천서 막 오른다

400년 동안 사랑받은 세기의 명작 ‘돈 키호테’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 무대 역사상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둔 작품 중 하나인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미겔 드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소설 돈키호테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데일 와셔맨이 대본을 쓰고 미치 리가 작곡했으며, 조 대리언이 작사를 맡았다.

2018년 국내 8번째 시즌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는 돈키호테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꿈을 꾸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역대 그 어느 시즌 공연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할 2018년 <맨 오브 라만차>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총출동한다. 세르반테스이자 돈키호테 역에는 대중을 사로잡는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 오만석과 영국 웨스트엔드까지 사로잡은 월드클래스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캐스팅됐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헬조선, 수저계급론, N포 세대 등 암울한 시대를 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공연 /인천시

영하는 신조어들이 속출하는 현 시대, <맨 오브 라만차>는 꿈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j@

## 안성시 ‘선택형 농정사업’ 참가단체 공개모집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2019년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을 내달 14일까지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로 축산물 및 임산물신청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 기준 1개소당 30억원 이내이며, 신청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요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이다.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